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3호 [루게 제2325호] 주제 99 (2010)년 10월 30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을 안고 총공격전을 더욱 힘있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2호 초고전력전기로 조업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 10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새로 2호초고전력전기를 일제시켰다.

혁명대고조의 선봉에서 영웅적기상을 떨치며 힘차게 전진하는 강선의 로동계급은 또한기의 초고전력전기로와 함께 다산소합금강생산기지를 건설하고 보산제철소 3호초고전력전공사를 끝냈으며 5500㎡산소분리기를 설치하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와 당창건 65년을 빛나게 장식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대상들이 완공됨으로써련합기업소에서 경제구조건설에 결실하여 오르는 여러가지 철강재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고 강철공업의 지평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조업식이 29일에 진행되

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조업식장에 모셔져있었다.

조업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내각총리 최영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홍성형동지와 리태남 내각부총리, 김태봉공업부총리, 강양모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판계부문 일군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지원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조업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업식에서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대화공사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로동자,

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인민의 봉사전당

옥류관 료리전문식당 준공식 진행

【평양 10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의 자랑 옥류관에 현대적인 료리전문식당이 새로 건설되었다.

봉치수려한 대동강변에 일떠선 료리전문식당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또 하나의 은정어린 선물이였다.

연건축면적이 6000여㎡에 달하고 수천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식당은 인민들의 리용에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대중봉사기지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민족적고전미와 현대미가 결합되고 우아함과 정교함이 잘 조화된 웅장화려한 료리전문식당이 건설됨으로써 옥류관지구는 특색있는 조선식건축물로 들어찬 자랑할만한 하나의 금양봉사거리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덕을 더욱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새로 건설된 옥류관 료리전문식당 준공식이 29일에 진행되었다.

추한 뜻깊은 시기에 료리전문식당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고 대고조전군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경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전하철 내각부총리,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 군인건설자들, 옥류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고병심 인민봉사총국 총국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당창건 65년을 축하하시어 길이 빛날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경



연설자는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당창건 65년을 축하하시어 길이 빛날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경

축한 뜻깊은 시기에 료리전문식당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고 대고조전군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경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전하철 내각부총리,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 군인건설자들, 옥류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고병심 인민봉사총국 총국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당창건 65년을 축하하시어 길이 빛날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경

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이 민위천의 사상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새겨안은 군인건설자들은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인신성을 발휘하여 6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천년을 책임지고 만리는 보충하자!》는 구호 밑에 군인건설자들은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새로운 공법들을 창안 도입하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공사기일을 훨씬 단축하고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를 훌륭히 실현하였다 고 강조하였다.

3면으로 계속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의 화선식정치사업 활발

조선로동당대표자와 당창건 65년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나인 뜻깊은 올해에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대열이 계속 늘어나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고 부강조국 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선동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은 우리 당사상사업방침을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직접 선전선동활동을 벌리는 선조병이며 정치활동가입니다.》

설비제조립합기업소 제관직장 제10작업반 선동원 전승복동무는 20년간 선동원으로 활동하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플라즈마 절단공이 되어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150%이상 넘겨 수행하였다. 그리고 급변 강군민발전전선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장치물체제작과 벌여졌을 때에

는 전투장에 많은 후방물자를 지원하고 전투원들속에서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1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던 400여의 각종 철관절단을 1주일동안에 끝내게 하였다. 또한 직장내의 민방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작업반원들의 후방사업에 기여함으로써 직장, 작업반의 《우리 선동원》으로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평강군 북계협동농장 제4작업반 1분조 선동원 로복남 동무는 선동원으로 활동하는 29년간 25종의 갖가지 꽃을 피워 리소제지에 모서진 어머니수령님의 태양상에 더린 것을 비롯하여 백두산3대장군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사업을 언제나 첫 자리에 놓고 수행하고있다. 그는 분조원들의 사상감정과 심리, 정황에 맞게 선동활동을 능숙하게 벌려나가고있으며 이선전적의 모범으로 10여회 벌어진 군소제지에서 도시거품을 실어오고 500여의 풀거품을 생산하여 눈발에 넘으로써 분조

의 알곡생산계획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또한 인간개조사업에 힘을 넣어 선동원으로 사업하는 기간 15명의 선동원들을 초급일군으로, 조선로동당원으로, 모범농장원으로 키우는데 기여하였다.

덕천지구관판련합기업소 서창형년란관 8명 제관1중대 1소대 선동원 김학철동무는 군사부무를 마치고 탄광에서 자원선출한 때로부터 선동원으로 사업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관심하시는 석탄생산투쟁에서 소대전투원들을 불려일으켜 해마다 석탄생산량을 넘쳐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지난해 150일전투, 100일전투 때에도 그는 석탄생산을 늘일데 대한 30여건의 해설담화자료를 준비하여 선동활동에 메기듯이 벌였으며 공장 당에서 8중에 20여건의 표어, 이동숙보관, 경쟁도표를 기동적으로 게시하여놓고 전투부위기를 고조시켜 증대앞에 달려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금야군 새동농장 제2작업반 4분조 선동원 김순희동무는 27년간 선동원으로 사업하면서 분조원들을 당의 농업혁명방정 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기 위한 선동활동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그는 해마다 가정에서 200여의 절충을 풀거품을 생산하여 눈발에 내리고있으며 부림소관리를 잘하여 매해 농장적으로 진행하는 소농평화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다. 올해 5월 모내기전투때에도 그는 능숙한 화선식동으로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 주면서 이선전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 분조가 지원력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모내기를 앞당겨 끝낼수 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모든 영농전투에서 당초급선동원들의 명예를 남겼듯이 떨쳐냈다. 그러하여 분조의 알곡생산량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개천시 봉화협동농장 제2작업반 2분조 선동원 김경환, 문천시 교합협동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강동지구관판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기업소합모부에서는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힘있게 짜고들고 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자와 당창건 65년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나인 자랑을 안고 올해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총전선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안의 혁명만방 학립경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10월 10일현재 2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그리고 평남관방 3명 임명기기본 결건소대와 2명 박형세결건소대, 강동관방 혁신계 양경수결건소대, 수도경 김광혁결건소대들이 10월 10일현재로 말거져 2년간 결건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이런 성과에 기초하여 련합

로력을 더 보충해주고 장비와 소공구들도 충분히 마련해주게 하면서 모든 것, 막장들이 드높은 생산열의로 들끓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련합기업소안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올해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최후돌격전에 떨쳐나 선전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혁명관방에서는 석탄매장량이 많은 구역들에 대한 결건방향을 확고하고 결건을 높은 속도로 내밀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이도록 하는 한편 일군들이 그 어떤 정황에서도 생산지휘를 능숙하게 할수 있는 기술수단들을 갖추어놓고 결건공들이 결건속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

나서도록 하고있다. 이에 고무되어 분발해나선 로적쟁 백역결속고도결건소대를 비롯한 구역들을 확충한 다음 결건을 빨리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아래관방들에 내려간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생산공정을 기술개진하기 위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우면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석탄생산을 늘이고 결건속도를 높이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과 로동자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 고있다.

평남관방에서는 설비보수계획을 정확히 세워 만가동을 보장하여 정대이음기를 비롯

백암땅에 일떠서는 살림집들

평안도 함흥시, 유치원, 병원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건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경제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평안도에서는 백암관의 모든 농장들이 새마을 건설을 세우고 도급, 시급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군들의 력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백암땅에 눈부신 전변을 앞 이윤 열의를 안고 현지에 달려나온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빠른 시일안에 살림집들을 질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결사투쟁의 투쟁을 힘차게 벌였다. 도인민위원회, 도평민련합기업소, 도경찰소, 도농촌경리

숭고한 믿음과 의리로 빛내여주신 전사의 학생

절세의 위인들께서 흥성남동지에게 배워신 고귀한 은정

오늘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막강한 잠재력과 위력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만능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지난날 야장간의 골부하적 담보이 올린 이 땅에 오늘과 같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만들어내는 자립적민족경제가 뚝뚝히 나타나기까지에는 실로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제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뜨거운 심혈이 깃들여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사회주의대건설의 날애

은 나라가 6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전투로 옮겨진것이었다. 메인 주제 62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던 흥성남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제하는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념에 의하여 정부원 (당시)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였다.

그날 밤 그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라의 살림살이와 경제발전건설을 설계하고 지도하는 국가계획위원회사업은 다른 부문보다 힘들고 복잡할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책임적인 사업이였다. 그런 중대한 임무를 성실하게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였...

혁명과 건설의 그 어느 한 분야에도 미치지 않은데가 없습니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도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는 나날에 수많은 인재를 키워 부강조국건설에 크게 환유하도록 내세워주시였다.

흥성남동지도 절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라나 오랜 기간 당, 국가, 경제기관의 책임적인 직무에서 사업한 능력있는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였다.

희망대로 마음껏 배워 공부하기가 되였다. 진후에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할 볼라는 마음을 안고 황해제철소 (당시)로 달려나가 평로와 용광로를 복구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품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넓힌 그를 크게 믿으시고 당중앙위원회로 불러주시고 경제사업을 맡겨주시였다. 그리고이는 그가 경제지도사업을 잘해나가도록 공장, 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도 데리고 다니시며 10여년간 돌봄을 키워주시였다. 그 은혜에도 하늘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계획사업까지 맡겨주시였으니 그 믿음과 사랑을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었는가.

흥성남동지는 자리에 서 일어나 경제하는 장군님의 뜻대로 일을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과 기대에 꼭 보답하겠다고 맹세하시였다.

흥성남동지가 새 직무에서 사업을 시작한 당시로 말하면 국가계획위원회앞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설의 해로 정해주시신 주제 63 (1974)년 인민경제계획을 시급히 세우는것과 함께 6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이후의 새 전진계획을 작성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있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다 포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계획을 과학적이고 현실성있게 세우는 사업은 흥성남동지에게 있어서 참으로 힘에 부치였다.

그의 이러한 고충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 전화를 거시어 사업정형을 알아보시고 국가계획위원회사업이 현실적으로 수고라 많았지만 힘을 내어 한번 본때있게 해보라고 격려해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시어 계획초안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바쁜 시간을 내시어 친히 검토해주시며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곤 하시였다. 그리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면 현실에서 포착한 문제들과 인민들의 의견을 알려주시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보좌해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무엇보다도 국가계획위원회 일꾼들속에서 당의 유일상징체제를 확고히 세우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이날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과업을 맡고 첫걸음을 뗀 전사가 사업과정에 자기만한 편향이라도 범할새라 마음쓰시며 계획사업에서 주관자의 배움을 가지고 당의 공중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며 열명중의 열까지 만대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에서 할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다심하게 일깨워주시였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흥성남동지가 걱정을 금치 못하였는데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신중히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동무는 우리 수령님께서 키우신 일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동무를 국가계획위원회에 보내니 앞으로 수령님의 의대로 일을 잘하여야 합니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안은 흥성남동지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그에게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초 선의 어린 지식인으로서, 혁명의 지휘봉에서 자라온 오지 못할 나날들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졌다.

해방전 정주주의 민둥민이 바깥에서 태어난 흥성남동지는 배울래야 배울수가 없었다. 그는 조국이 해방되어서야 것처럼 열명말했던 배움에 대한 소원을 이룰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시민 민주의 학원에서 고급중학교 (감시)를 나온 그는 미래가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자 손에 총을 잡고 전선으로 나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수령님께서 취해주시는 은정있는 조치에 의하여 김책공업대학 (당시)에 입학하여

못하여 도대지고있을 때였다. 당과 정부의 책임일꾼들과 국가계획위원회 일꾼들을 당중앙위원회로 불러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계획의 중심방향과 부문별과업과 함께 학도를 대대적으로 놓아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이는 학도화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들을 하나하나 찍어주시였다. 그들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흥성남동지는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많은 대상들의 생산조건만이 아니라 개개의 대상들이 자리잡고있는 지대의 지형특성까지 환히 꿰뚫어주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한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흥성남동지는 높은 당적안목과 깊은 지식을 가지고 경제지도사업을 능숙하게 해나가는 능력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흥성남동지를 크게 믿으시고 그후에도 그에게 여러 중요한 직무를 맡기시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에서 지혜와 재능을 다 발휘하도록 하시였다.

그날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흥성남동지가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과 기대에 완전히 보답하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시며 힘에 부처할 때면 용기를 주어 일때 세워주시고 생각이 부족하면 지혜를 펴워주시면서 따듯이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일을 맡아 한 일꾼이라고 하시며 그를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주시였다.

은 나라가 역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적성공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부글부글 끓고있던 때였다.

당 제6차대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대회주석단으로 높이 모시고 진행하는 첫 당대회인것으로 하여 대회전 야부터 세계의 주목을 모았다. 그때 정부원에서 사무국 국장으로 사업하던 그는 영광스럽게도 당대회대표로 선출되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며

고난을 이기고 일떠선 우리 조국이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던 주제 92 (2003)년 9월, 흥성남동지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념에 의하여 함경남도당 책임비서로 임명되였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내각총리로 사업하던 흥성남동지를 함경남도에 파견하시는데는 깊은 의도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행동을 바쳐 배내주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과 군사에서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강국의 지위에 떨쳐나서려는것이 경제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였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함경남도를 특별히 중시하시였다. 공업도인 함경남도에는 화학공업, 제철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여러 공업부문을 구획하여 맞게 전개되여있었다. 그나나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사업을 영도하시면서 크나 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만면해주시신 나라의 귀중한 재부였다. 함경남도의 경제를 부흥시켜주는것은 경제강국건설에서 불가결하고 중요한 과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명철하게 이해하고있었다. 함경남도에서 이룩한 신적업적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었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경제에 밝고 당 사업정형도 풍부한 흥성남동지에게 함경남도의 사업을 맡기면 좋겠다고 해설수있으리라고 굳게 믿으시던것이었다.

그때 흥성남동지의 나이는 74살이였다. 인생의 황혼기에 뜻밖에 이처럼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흥성남동지는 전사의 삶을 끝까지 혁명의 길에서 빛내여주시려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의리깊은 사랑에 눈굽을 적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하여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함경남도에서는 그때까지도 그 흔적을 털어버리지 못하고있었다.

경제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가슴짐이 간직하고 비상한 각오로 사업을 시작한 흥성남동지는 중공전선을 추켜세우는데 정치적신심을 돌려주시는 중요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하나하나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일꾼들과 당조직을 힘있게 발휘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도가 식량을 자급자족할때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언을 받들어 농사에 깊은 관심을 돌리셨으며 농흥시를 꾸리는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런데 당대회직전에 그는 대외 전기간 초소에 남아서 나라의 경제사업을 지휘할 때 대한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당 제6차대회가 열리는 영광의 그날 흥성남동지는 제기되는 문제를 서둘러 처리하고 텔레비죤앞에 마주앉았다. 그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당대회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한 일꾼이 달려와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동무에 대한 말씀이 계시었다고 하면서 빨리 대회장으로 가라고 재촉하는것이였다. 그가 크나큰 흥분을 안고 대회장에 들어섰을 때였다. 대회장은 회의시작직전이여서 조용하고 숨은 한 분위기가 휩싸여있었다. 그는 정숙한 분위기를 깨뜨릴새라 조심히 뒤에 있는 빈자리를 찾아갔다. 그러는데 그를 알아본인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앞으로 나오라고 손저어 부르시는데것이였다. 앞부분에 한 좌석이 그를 기다리고있던것이었다.

회화와 격정속에 영평넘치는 행복한 순간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대회에서 마지막의 정으로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관직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제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수위에 높이 모시는 크나큰 기쁨과 감격으로 은 장내가 환회에 휩싸여있는 가운데 당중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호명되였다. 순간 흥성남동지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자기의 이름도 잊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대회장으로 불러주시는것을 은 그에서야 깨닫게 된 흥성남동지는 절세의 위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가슴에 사무쳐와 끝내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워주신 일꾼들을 더없이 존중하고 아끼시는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흥성남동지를 정부원 제1부총리로 내세워주시는것으로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내각이 새로 조직되였을 때에는 다시 그를 내각총리로 임명해주시였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려운 과업을 맡은 흥성남동지가 신심있게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자주 전화를 걸어 자기들이 문제들을 알아보시고 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나야 많은 그가 사업하는데서 지장을 받을새라 시력에 맞는 안경까지 마련하여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시어 자주 함경남도를 찾으면서 현지에서 그의 사업을 보살피고 이끌어주시였다.

주제 94 (2005)년 9월, 선군혁명명도의 길에 함경남도를 찾으신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함남시안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함남비료련합기업소의 새로운 비료생산공정을 비롯하여 흥성남동지가 전개한 사업들을 로해하시고 비범한 예지로 현대화와 생산활성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다시금 흥성남동지와 그의 일꾼들을 몸가끼며 부성시에서 그들은 고무해주시면서 나라의 공업을 발전시키는에서 함경남도가 선구자적 역할을 할때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제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관철을 위하여 힘차게 떨치나선 그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힘을 합쳐 한해동안에 함남비료련합기업소의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으로 개진하고 비료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통상기계련합기업소에서 1년도 못하는 짧은 기간에 하나의 큰 공장과 맞먹는 압축기공장, 압축기공장 성능이 좋은 압축기들을 해마다 수백대씩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어렵고 방대한 금전증강 붕청날것생산공정공사를 짧은 기간에 정진시켜 혁명적 결속과 광포오리공장의 기공직장도 현대적으로 새로 건설하였다.

주제 95 (2006)년 11월, 선군혁명명도의 길에 또다시 함경남도를 찾으신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흥성남동지를 비롯한 그의 일꾼들이 한해동안에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도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로해하시면서 그에 오는 흥성남동지와 일꾼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뜨겁게 해어리였다. 사실 혁명을 보면 모든 도가 다 같았다. 하지만 함경남도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 비결은 책임일꾼들이 결사투쟁의 정신으로 막달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대담하게 일을 전개해 있었다. 모든 일꾼들이 함경남도책임일꾼들처럼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전개하여 결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것이 없었던것이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올해공동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를 받고 펼쳐나선 장건의 로동계급과 건설자들, 지인자들이 집단적힘을 일으켜 현대화공사에서 위훈을 세운데 대하여 말하였다.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절세위인들의 혁명적업무를 같이 빛내이며 최정신을 들과함대 대한 당의 구호를 받고있고 기업소의 현대화를 계속 다그치며 철강재생산에서 이익을 보았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특별조직까지 취해주시었던 이에게서는 그를 함경남도에 파견하시어 자주 전화를 거시어 앉지 말고 우리 함께 오래

도의 일꾼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지니신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 함경남도가 신근시대에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오는 앞날을 향하여 제일먼저 내달리겠다고 하시면서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다시금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결에 데리고 일하실 때처럼 언제나 자신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어 걸음걸음 보살펴주시니 흥성남동지는 새 힘입어 추겨쳐올랐다. 그는 비록 80살을 눈앞에 바라보는 몸이었지만 청춘의 열정을 가지고 경제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관철로 일꾼들과 당조직을 힘있게 불리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제하는 장군님의 슬하에서 경제지도방법을 깊이 체득한 흥성남동지는 모든 작전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주도제일하고 현실성있게 세웠다. 그는 현대화와 생산정성화를 위한 사업을 포지할 때면 먼저 해당 일꾼들로 하여금 현지에서 도하여 대책안을 만들도록 한 다음 자신이 그 안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협의회를 열고 끈간히 검토하게 하였다. 대책안이 우리 나라 실정와 현실조건에 맞는 합리적이었던가, 기술력량과 토막, 자재를 타산하여 가능성있게 세워졌는가, 경제적효과성은 어떠한가, 당의 경제발전전략에 맞는가. ...

그가 제기하는 문제를 놓고 대책안을 결정하면서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안을 확정하기까지의 과정에 일꾼들은 무엇을 놓쳤으며 무엇이 부족한가를 스스로 찾았고 많은것을 배웠다. 그리하여 협의회의가 끝나면 일꾼들은 눈앞이 환해지는 신심에 넘쳐 사업에 전진해나갔다. 많은 전력과 생산면적을 절약하고 공해를 철저히 방지하면서 비료생산을 늘일수 있는 함남비료련합기업소의 기술개진안도 이렇게 세워졌다. 그리고 통상기계련합기업소에서 일터세우는 압축기공정의 압축기생산 능력도 전국의 탄광, 광산들의 실태를 알아본 그가 마장수와 골진조건을 일일이 다 따져보고나서 확정하였었다.

의 농사에 더 깊은 관심을 돌린 흥성남동지는 해마다 1월초가 되면 현지 군역 수련의 협동농장 관리위원장들을 불러 그들이 세운 영농계획을 현지하게 검토하게 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농장의 경지면적과 두벌농사면적으로부터 심어려는 곡식의 품종과 모판형식, 거름생산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따지였다. 그런 다음 평당 토지수와 토지면적, 어찌되는 개수, 이삭당알수와 초기무게를 계산하여 농장에서 얼마만한 수확을 낼수 있다는것을 에누리할수 없게 과학적으로 파업을 주문 비롯했다. 그는 이렇게 모든 농장이 계획을 빈틈없이 세우도록 한 다음 한해동안 동안의 농장들을 돌아보며 영농사업을 일정대로 내밀도록 엄격히 요구하였다.

흥성남동지와 함께 일한 일꾼들은 그가 모든 일을 도의 범위를 벗어나 총리때처럼 언제나 국가직업장에서 생각하고 일해나갔다고 말하곤 한다. 그는 도의 경제사업을 지도하면서 에로개이 제기되면 일꾼들을 분발시켜 도 자체의 힘과 력량을 풀어나가도록 하였으며 절대로 나라에 손은 내밀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내각의 결론을 받아 어떤 설비를 수입하게 될 때 어떤 일꾼들이 어떤 타산안을 놓고 국가계획위원회의 일꾼들보다 더 엄격하게 흔한 흔한 따지곤 하였다.

주제 96 (2007)년 8월,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함경남도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금 도를 찾아가주시였다. 세상에 삼복철강행군으로 알려진 길에서 영웅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이해 여를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들리시는 곳마다이신 한해동안에 해놓은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도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고, 모든 일이 잘되고있다고 거듭 강조해하시였다. 그 영광의 자리들에서 흥성남동지는 공장일꾼들을 경제하는 장군님앞에 적극 내세워주시면서 자기의 뒤에 조용히 서서 기뻐하시지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이런 때야말로 그가 바라가지 않는 행복한 순간이였다.

성품이 품고 고지식하며 진실한 일꾼,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더없이 아끼고 사랑하시였다.

흥성남동지는 나이가 많은데다 병이 심하였다. 평양에서 그를 결에 데리고 일하실 때에도 반정을 잊고 일하는 그의 건강을 걱정하시어 출근시간을 늦추어주시는 특별조직까지 취해주시었던 이에게서는 그를 함경남도에 파견하시어 자주 전화를 거시어 앉지 말고 우리 함께 오래

오래 일하자고 따듯이 고무해주곤 하시였다. 그리고 흥성남동지가 병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낮과 밤이 따로없이 무리하게 일하고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시면 즉시 그에 그를 중앙의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하시였다. 그리고이고 마음어 놓이지 않으시어 그가 퇴원할 때에는 현대적인 투석기를 보내주시고 의사와 간호원을 불러 항시적으로 치료상방조와 섭생을 부재받도록 하시지는 은정깊은 조치를 거듭 취해주시였다.

주제 97 (2008)년 8월,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함흥시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도안의 여러 단위를 돌아보실 때에도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못한 그가 무더위속에서 자신을 따라잡는 길을 걷지 않도록 하라고 일꾼들에게 이르고 자기에게는 32도의 고온이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놓고 힐한 병결을 돌아오르시어 멀리 리원군산림경영소의 양묘장까지 찾아주시였다. 그 길에서 이에게서는 마중나온 도의 일꾼들이 인사와 말씀을 올리기도 전에 먼저 흥성남동지의 안부부터 물으시였다.

흥성남동지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자육자육을 마음속으로 따라 걸으며 눈물을 감지하지 못하였다. 도의 책임일꾼으로서 그의 현지지도를 보좌해드리지 못하는것만도 죄스럽기 그지없는데 이에게서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알려해주시고 도안의 사업이 잘되는데 대하여 과분한 칭찬을 주시었으니 그 믿음과 은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없으랴. 흥성남동지는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아슬아슬 노력하였다. 그루뭉 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 공장과 농촌을 찾아도 부축을 받으며 걸어야 했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함성남동지의 건강이 크게 걱정되시어 다시 그를 중앙의 병원에 입원시키게 하시고 마음놓고 병치료를 하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주제 98 (2009)년 2월, 중앙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흥성남동지는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또다시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겠다고 소식을 접하자 여지를 써서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그리고 도에 내려오자마자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단위를 하나하나 돌아보시어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장군님의 현지말씀관철로 불리워하셨다. 병원에서 말라나고 후추곤 붕동형농장에서도 2.8비날론련합기업소, 통상기계련합기업소, 함남비료련합기업소, 다시 광포오리공장과 발전소건설장으로 이어진 길은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하려는 불굴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걷는 전사의 마지막인생 길이었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할수 있게 3년만 걸 걸디였으면... 거저가는 자기의 생명을 두고 그는 가슴을 치며 안락과와하였다.

사랑하기 전날인 3월 30일에도 그는 일꾼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밤 11시가 넘어도록 함남비료련합기업소와 통상기계련합기업소, 함남제약공장과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아 경제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관철정형을 로해하고 돌아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흥성남동지의 사망에 대한 비보를 받으신 경제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세사를 또한 험한 잃는데 대하여 더없이 애석해하시였다. 그리고 그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의 올드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흥성남동지를 잊지 못해하시며 그는 제능있는 경제실무자였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흥성남동지의 가슴에 영웅의 혼내는 없다. 하지만 그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어 함경남도의 경제사업을 추켜세우는데 지울수 없는 생의 흔적을 남기셨었다.

숭고한 믿음과 사랑으로 일꾼들을 한몸에 안아 참된 혁명가, 애국자로 삶을 빛내여주시는 경제하는 김정일동지, 우리는 흥성남동지의 한생을 통하여 경제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따르는 길에 참된 애국이 있고 혁명가가 누릴수 있는 최대의 영예와 행복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체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제하는 장군님의 선, 제자없는 우리 일꾼들은 혁명의 한길에서 언제나 한몸슴으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실현할것이다.

선사자 리수근
트위기자 박동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수썰로 밤방 유도요노각하

나는 얼마전 귀국의 수마트라섬주변에서 일어난 지진과 해일도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손실이 났다는 불행한 소식이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리제민들과 사랑자야가족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니다.

나는 당신과 귀국정부가 이번 재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10월 28일

1 면에서 계속

첸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은 새로운 초고전력전기의 설계를 훌륭히 완성하고 방대한 량의 기초공크리트타입과 제반물자, 설비조립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생산공정이 자동화, CNC화되고 주조철에 의한 강철생산은 보장할수 있는 초고호전력전기로써 단 5개월동안에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련합기업소와 금속건설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다산소합금생산기계를 새로 꾸리였으며 3호회전로계공장과 550만㎾소분리기설치공사를 기일을 훨씬 앞당기고 건설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혁신을 일으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올해공동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를 받고 펼쳐나선 장건의 로동계급과 건설자들, 지인자들이 집단적힘을 일으켜 현대화공사에서 위훈을 세운데 대하여 말하였다.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절세위인들의 혁명적업무를 같이 빛내이며 최정신을 들과함대 대한 당의 구호를 받고있고 기업소의 현대화를 계속 다그치며 철강재생산에서 이익을 보았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특별조직까지 취해주시었던 이에게서는 그를 함경남도에 파견하시어 자주 전화를 거시어 앉지 말고 우리 함께 오래

새로 건설한 초고호전력전기와 550만㎾소분리기와 3호회전로공장의 운행을 잘 짜고들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성화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경제하는 김정일동지님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절세위인들의 혁명적업무를 같이 빛내이며 최정신을 들과함대 대한 당의 구호를 받고있고 기업소의 현대화를 계속 다그치며 철강재생산에서 이익을 보았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특별조직까지 취해주시었던 이에게서는 그를 함경남도에 파견하시어 자주 전화를 거시어 앉지 말고 우리 함께 오래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내 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

선군시대 또 하나의 선경을 펼쳐 남포시의 불장식을 두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하고 유복한 생활을 마땅히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항구문화도시 남포시에 화려한 불빛이 펼쳐졌다.

우아하고 신비한 불의 세계를 펼쳐놓았다.

내, 레드배합에 의한 화려한 불장식으로 황홀경을 이룬 남포시의 야경은 불수록 감탄을 자아내며 새로운 기쁨과 신심을 안겨준다.

어제는 원산시와 함흥시 아름다운 불의 도시로 진전되고 평양시의 불장식이 다시 새롭게 완성된데 이어 오늘은 서해바다를 끼고있는 남포시가

환희로운 야경을 펼쳐가니 이것은 인민의 리상이 날을 따라 활짝 꽃피는 내 나라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불의 세계에 잠겨 남포시의 거리거리를 끌었다.

더 밝고 환하게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흰 레드봉으로 문관을 잡아주고 흰색과 황색을 조화롭게 배합하여 온은하게 보이도록 불장식한 남포역 건물과 건물전체를 환하게 밝히면서 옷부터부터 따라 레드봉으로 색채를 줌으로써 극장 불장식한 남포구장.

마치도 분수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드봉물등을 이체롭게 하면서 내온과 투광을 배합하여 건물에 립체감이 나고 밝게 살아나도록 불장식된 언덕 원과 건물들의 특성에 맞게 레

드봉물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투광을 적절히 배합한 향구러판, 고려병헌, 도서판...

남포역 앞 네거리거리와 상대 두광장거리, 와우도거리 등 강안을 따라 뻗은 긴 구간에서 대비하게 늘어선 고층살림집들과 봉사망들에서 번쩍이는 불장식들은 또 얼마나 환한가.

남포시의 불장식은 도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원산시와는 달리 여러개의 거리로 형성되어 있고 공공건물들과 주택들이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내중심에 집중불장식구역을 선정하고 주변의 거리와 살림집 그리고 봉사망들에 대한 불장식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와우도거리의 불장식은 불수록 황홀하다. 10여층의 아파트들이 서로 다른 색과 물동으로 조화롭게 불장식된 땅우의

불바다도 화려하지만 편뫼의 수면위에 비친 불의 세계는 더욱 아름다와 신뜻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우리에게 남포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최국철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저 대동강 건너 황해남도에서도 저녁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포시의 불장식을 구경하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남포시에 이처럼 환한 불장식이 펼쳐지다니나 출장지에서 돌아오던 주민이 아직도 평양의 거리인줄 알고 집앞까지 다 와서도 내릴걸름 하지 않아 차안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보따리를 퍼뜨린 일도 있다고...

그의 말에 우리도 웃었다. 웃음속에 남포시의 거리를 또다시 바라볼수록 수많은 추억이 환황한 불빛속에 어려웠다.

나라를 잃었던 지난날 고통스러운 세상살이를 한탄하는 어부들의 한숨소리가 그칠새 없던 남포.

바로 그런 땅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게 해주려고 우리 수령님께서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백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바치오신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었다.

전후 남포시가 폐허로 되고 이곳 인민들이 반토글집에서 생활하고있을 때 혁명의 수도 평양시 건설에 참가하고있던 한 건설사업소의 로력과 설비, 자재를 특별히 이 도시에 보내주시였을뿐 아니라 몸소 여러차례 현지에 나오셔서 건설방향과 방도를 밝히 주신 우리 수령님.

전정 건물 하나, 도로 하나, 유원지 하나에도 남포시를 현대적인 항구문화도시로 훌륭하게 꾸리기 위해 바치오신

우리 수령님의 끝없는 로고가 그대로 어려있는 못을 땅이기에 우리 장군님께서서와 또 얼마나 뜨거운 심혈을 바치오셨던가.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 전기교생을 많이 하면서도 배업에 대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손으로 기대를 돌리고 등잔불심지를 돌리며 아이들을 키워온 남포시도동계급과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더 밝고 황홀한 불의 세계를 안겨주고있으시어 우리 장군님 펼쳐주신 락판의 불바다, 행복의 불바다여!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한시라도 빨리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기 위해 불장식 하나하나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친 불장식연구자들의 연구사들과 로동자들, 남포시의 많은 기관, 기업소들과 해당 부문 일군들.

그 모든 사랑과 정성에 말없이 전해주며 빛을 뿌리는 남포

시의 불장식이어서인가 그 불빛 아래서 웃고 떠드는 남포시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우리 가슴을 파고든다.

남포시에 처음으로 불바다가 펼쳐진 그날 모두가 거리에 펼쳐나와 춤바다를 펼쳤던 사람들이 이 밤도 불장식구경에 시간가는줄 모른다.

불빛은 가로수밑에서 쌍쌍이 혹은 가족별로 거리를 거닐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다.

불빛황홀한 거리의 야경을 배경으로 결혼사진을 찍는 신랑신부의 모습도 언뜻 보인다.

불구경한다고 펼쳐나선 아이들과 어른들로 거리거리는 밤가는줄 모르고 밝은 불빛 쏟아져 나오는 아바타의 창가마다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불빛은 거리, 인민의 웃음소리가 나날이 커가는 환희의 도시, 기쁨의 도시!

《강성대국이 당장 눈앞에 온 것만 같아 흥분을 누를수 없습니다. 저 불빛바다에는 우리 남포시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모든것을 다 바쳐 보답할 우리 남포시민들의 불타는 열정이 그대로 어려있습디다.»

이것이 어찌 남포시의 한 주민의 심정만이라.

희한한 불빛아래서 남포시의 로동계급과 시민들은 강성대국의 희망찬 태양을 그려보다 그 날을 앞당기는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더 좋은 태양을 그려주며, 더 불타는 열정을 안겨주며 남포시의 불장식은 환희롭게 빛을 뿌린다.

글 분사기자 장은영
사진 분사기자 전성남
김진명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대양》 제5부 《인민군대를 경제건설의 앞장에 세우시여》가 나왔다

【평양 10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기독교학생연맹연락처에서는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대양》 제5부 《인민군대를 경제건설의 앞장에 세우시여》를 만들어 내놓았다.

영화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돌기구를 열어 나가신 불멸의 업적을 수록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신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인민군대를 기둥으로,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강성대국건설

남조선 괴뢰군당국은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북남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괴뢰군당국은 쌍방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에 계속 매어달리고있으며 조선선해해상 우리측 경비에 해군함정들을 끈질기게 들이치는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있다.

괴뢰군당국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반공화국실리전방중의 주파수변경과 그 청취에 필요한 라디오를 우리측 지역에 살포할데 대하여 력설하고 확실히 추가설치, 새로운 대형전광판설치까지 떠들썩한 사태의 엄중성을 대해주시고있다.

우리측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10월 22일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에 실수회담을 가질것을 남측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우리의 회담제에 합의할사건에 대한 그 무슨 《책임있는 조치》와 북남군사적합의문제의 《불명확성》을 운운하며 회담자체를 거부해나갔다.

지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 쌍방관계가 극도에 달하였을 때에도 상대방의 회담제 자체를 거부해나선 때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것은 대화거부가 곧 대결과 전쟁추구로 되기에문이다.

대화와 접촉을 거부하는 괴뢰군당국의 처사는 대세의 흐름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며 불신과 대결로 동족을 등지려는 반역행위이다.

《천안》호침몰사건으로 말하면 그것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꾸민 특대형살포, 모략극이며 따라서 괴뢰들은 이에 대하여 마땅히 우리에게 뉘그러한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신성한 쌍방합의리행을 공공연히 회피하는 남측의 무모한 도발행위에 대하여 우리 군대는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으로 가차없이 처리해나갈것이다.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가 소중하지만 괴뢰들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결코 우리를 계속 모해하고있는 이상 우리 역시 대화와 접촉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군사적대화와 접촉이 없어도 북남관계는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따라 우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것이다.

남조선괴뢰군당국은 대화거부로 초래되는 북남관계의 파국적후과가 얼마나 큰것인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것이다.

주제99 (2010)년 10월 29일

당창건 65돐경축 전국체육축전 폐막

【평양 10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당창건 65돐경축 전국체육축전이 폐막되었다.

우리 인민들과 체육애호가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지난 15일에 개막된 축전에서 모든 체육인들은 평시에 받아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10월의 명절을 성대히 경축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나라의 체육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번 체육축전에서는 창조대사격, 사격, 활쏘기, 투상, 력기경기, 여러 세부종목에서 공화국 새 기록이 세워졌다.

축경기에서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기의 속도화를 실현하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한 만경봉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통구경기에서는 기관차체육단 남자선수들과 압록강체육단 녀자선수들이, 배구경기에서는 4.25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각각 제1위를 쟁취하였다.

폐막식이 29일 평천거리 통구경기장에서 있었다.

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평안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종무 조선인민군 장령, 관계부서 일군들, 체육인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축구, 배구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경기에서 높은 기술을 발휘한 선수들과 모범적인 단체를 예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박명철체육상이 폐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당창건 65돐경축 전국체육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에 대해 언급하고 축전기간 체육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파시되었다고 말하였다.

모든 체육인들이 체육기술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해 계속 분발함으로써 국제경기장에서 선군조선의 기상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주체체육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게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총련 일군 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10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유인복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원들은 만경대에 있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시작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유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겠다.

대표단은 또한 대동강파수합동장, 평양방직공장, 대동강타일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을 참관하였으며 최첨단선진시설을 돌아보았다.

물들을 옮겨주는 것을 비롯하여 자가 사는 마을을 사회주의성정으로 꾸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체적 계획을 세워놓고 터운 계획을 밀고나가고있다.

로동농민원 조 선 화

해산경제전문학교 일군들 기록부에는 교수문건준비로 부터 시작하여 교수

【평양 10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해산경제전문학교 일군들은 기록부에는 교수문건준비로 부터 시작하여 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원들이 소용한 실력과 교수특기, 우월한 학업성취를 비롯하여 자질합격인 교수사임이며 교원들이 잘하는것은 교원에게 따르는 대책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자질향상사업형들과 어느 주에는 어떤 주에는 보여주기교수가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우리는 교실의 뒤쪽에 조용히 앉았다. 리경숙, 김승철, 김장만동무들을 비롯하여 여러 기록부를 통해 낯을 익힌 교원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모두 10월 8일모범교수자,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들이었다. 보 여주기교수에 출현한 전영남 동무도 실력있는 교원이었다.

그의 보여주기교수가 끝나자 합동회가 진행되었다.

보 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며 무엇인가 부지런히 여기는 한 교원이 류달리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옆에 앉은 교원이 그가 바로 교장 박홍철동무라고 하면서 교장이 가지고있는 저 책은 여러 가지 참신한 자질향상사업들을 낳는 요술책이라고 조용히 귀띔해주었다. 그것을 보 고싶은 충동이 앞섰다. 교장을 만난 우리는 요술책부터 먼저 보자고 하였다. 교장은 별 거 아니라고 하면서 부피가 터운 책을 내미는것이였다. 그것은 교수합격기록부였다.

2010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 소식

우리 나라 팀 조별리그전에서 오만리움을 2:1로 타승, 준준결승경기에 진출

우리 나라 팀이 2010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 조별리그에서 오만리움을 2:1로 타승하였다.

우리 팀과 오만리움의 경기가 28일에 있었다.

앞선 경기들에서 이란팀과 2:0으로 이기고 수리아팀과 1:1로 비친 우리 팀은 승리

중국 공산당 룡녕성 단동시위원회 대표단 귀국

【평양 10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서기 대우

신흥군 창시협동 보다 환하고 깨끗하게

농장에서 마을을 잘 해나가고있다. 리량위원회 지도에 농장일군들은 작업반 들에 내려가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어 강화천정리와 도로보

